

2월 17일 주님말씀 종합

1. 사탄을 대적하며 깨어 있어라

2. 시 - 말씀

3. 시 - 심정의 도

작성일 : 2010. 02. 17. 새벽 12시 47분~

작성자 : 주사랑

진정 나 주주 예수의 말이니 무를 꿰어 나의 말을 정결히 받들어라. 내가 오늘 섭리사에 급절하고도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귀만 기울이지 말고 마음을 기울임으로 영혼을 기울여 모두 잘 들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듣지 못하여 사망에 갈까 함이다. 이미 주일 수요일 말씀을 통해 선생이 모두 교육하고 부흥강사가 모두 너희에게 일했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으로 내가 다시 말한다.

말 속의 심정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 모르니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한다. 내가 내 입으로 꺼내기 민망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교역자들이 예배 때 말씀 원본 그대로 선생 심정을 전해야 하지만 그 후 말씀을 근거하여 첨부하여 재교육을 해야 하는데 안한다. 이것은 충분히 너희들끼리 교육하고 마음단속 행동단속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다.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다지고 그동안 선생을 통해 외친 말씀을 교역자가 재교육을 꼭 해야 하며 교인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에 꼭꼭 참여해야 한다. 교육만이 마음을 단속해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될지니라.

섭리사에 너무나 거대한 사탄의 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모두들 알고 있느냐? 최전방에서 싸우는 자도 있고,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왜 알려 주냐고? 전지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쟁이다. 육적으로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 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영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너희의 영혼들을 저 사탄의 사자들이 무참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나라. 어찌 하면 좋을꼬. 오오, 나는 탄식뿐이노라. 내 신부들이여. 깨어나라. 진정 너희는 깨어나야만 한다.

나는 너희를 살리려한다. 절대 너희만은 뺏기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돌쪼발과 같을지라도 말씀으로 너희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하니 내 말을 들어라.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아라. 전쟁이 나면 아무것도 모르던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고통을 받았다.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시련은 함께 있는 것

이다. 영적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육적 환란의 바람도 불어 올 것이다.

마음이 이미 뺏기었기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 육적 행동적 죄가 지어졌다. 그 죄는 냄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독하고 죄질이 가장 독한 것이라 죄인 혼자 그 죄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는다. 같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지금에 영적전쟁시대임을 알고 깨어 기도하라. 섭리사 너희들이 너무나도 어렵다. 너무 어려 다 말해줄 수 없다. 1급 기밀은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하고도 중요하니 이른다.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섭리사 모두 같이 비상기도를 해야 할 때다. 기도하라! 섭리사여 기도하라!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있어야 나도 있고 선생도 있다. 지금은 너 자신을 나에게 내어 맡기고 나에게 너의 영혼을 위탁하며 수시로 무시로 사탄을 물리쳐라. 조급의 마음의 틈도 보여 주면 안 된다. 한명이 무너지면 그 외벽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너를 말씀으로 기도로 지키어라.

너를 위해 기도하였느냐. 선생을 위해 이 섭리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주어라. 너희가 모르는 섭리사 기도거리가 너무나 많다. 그 모든 것을 나와 선생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 같이 질 수도 없는 선생과 나의 십자가이니 기도해주어라. 그의 영혼을 위해 육을 위해 끝까지 목숨 다해 기도해주는 자가 없다. 목숨 다해 목숨 다할 그 날까지 기도해주어라.

내가 버린 자들로 인하여 너의 영혼도 버려질까 염려된다. 내가 너희만큼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신부를 버리지 않게 하라.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가 버리게 하는 길을 걸어갔음이니라.

사탄의 총공격이 너무나 매섭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노라. 나는 이 섭리사에 역사하고 있는 구주예수니라. 나는 이 섭리사를 통하여 선생을 통한 역사로 채워 할 것이다. 나의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았고 섭리사도 실패하지 않았다.

섭리사를 옥되게 하고 선생을 옥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이것을 섭리사의 법으로 정하노라. 섭리사에 법을 정하고 내가 섭리사에 말씀을 주면 너희 주

일 수요일 말씀이 너희는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겠지만 모든 전 세계와 전 우주 전 영계까지 이 말씀으로 운행된다. 그것이 여호와 창조주 법칙이요 전지전능하심이라. 그러하니 깨어있어라.

섭리사는 나의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것이다. 누가 감히 내가 세운 자 선생을 모독하느냐. 선생과 이 역사에 단 하나, (천천히 읽어주세요) 실오라기라도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고 내 아버지를 건드리는 자임으로 나는 용서치 않겠다.

나는 심판의 칼을 이미 들었다. 깨어있어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기도하여 내 심판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라. 의인은 심판의 날에 춤추는 것이요, 악인은 멸망하리라.

내 신부여. 선생의 피눈물을 깨달아보아라. 그의 피눈물이 서려있는 말씀을 좀 보아라. 그의 말씀으로 나까지 피눈물 어리는 구나. 신부여. 나의 신부여. 나와 같이 울며 나와 같이 대화하며 나와 같이 이 역사를 지키자. 막내만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옥토 밭과 같은 자들아! 내 말을 귀히 들어줄 것을 믿는다. 사랑한다. 내 신부들이여.

사랑하기에 전한 말 사랑하는 내 신부들이 사랑으로 들어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사랑한다. 안녕.

내가 너에게 시를 줄 것이니 정결히 적어라.

<말씀>

말씀은 곧 나다.
말씀은 내가 어려 있지.
영통한 내 사랑
말씀에 새기어
영통한 내 신부에게
눈물어려 주었더니
내 신부
하얗는 눈물로
만자와
눈물로 영통히
기록하여
섭리사 내 신부들에게

피눈물 영통히 새겨 주니
그 피눈물 같이 흘러줄자
그 누구라.
내 피눈물
선생 피눈물만
똑똑 이로우나.

<심정의 도>

나의 손에는 피가 난다.
심정의 피가 매마르지 않고 난다
피 흘리는 고통 그치지 않는다.
피 흘리는 고통이면 어떠한.
내 신부만 구할 수 있다면
내 신부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데도
내 피눈물
내 혈육의 피에도
구할 수 없는 저 영혼에
심정의 피눈물 흘리니
이것이야 말로
쓰리고 쓰리다.
건딜 수 없어
목이 메고 영혼이 매여 온다.
이 고통 그 누가 알랴
선생만 이 시간 함께 우네.